

# “절에 오니 불교가 귀에 쫄쫄~”

### 독서 모임 ‘징검다리’ 엄마 회원들 ‘엄마 따라 절에...’ 저자 김광호씨와 사찰기행



김광호 저자(사진 왼쪽)가 징검다리 회원들에게 전통사찰의 건축양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엄마 따라 절에 가기〉를 쓴 김광호(현 독) 저자를 따라 ‘엄마’들이 부산 범어사를 찾았다.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던 5월 26일 범어사 일주문 앞에서 20여 명의 엄마들은 김 저자의 설명을 받아 적느라 분주하다. 손에는 김 저자의 책 〈엄마 따라 절에 가기〉와 필기도구를 챙겨 들고 때론 책을

뒤적여보기도 하며 설명을 듣는 엄마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김 저자를 따라 범어사를 찾은 이들은 도서관에서 만나 결성된 독서 공부 모임 ‘징검다리’의 회원들. 아이들의 독서지도를 하다가 ‘우리 전통문화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공감에서 올 초부터 본격적

인 공부를 시작한 엄마들이다. 아이들에게 바른 전통 문화를 알려 주기 위해 시작된 엄마들의 공부. 전통문화의 90% 이상이 불교문화라는 점에 착안, 자연스럽게 통도사 범어사 등 부산 인근의 전통 사찰로 향하게 됐다. 2주에 한번씩 모임을 갖고 이미 〈한국사찰의 이해〉라는 책을 읽고 통도사, 범어사

초등불교학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강의로 이름 높은 김 저자는 때론 우스개 소리를 섞어 가며, 때론 흥미진진한 예화를 들어가며 불교의 근본 가르침, 불교 용어, 건축 양식까지 그칠 줄 모르고 설명을 쏟아냈다. 하마비, 일주문, 천황문, 불이문, 종각, 대웅전, 삼층석탑으로 이어지는 동안 특색 짙은 김 저자의 설명과 엄마들의 공부 자세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전통 문화의 중심인 불교문화를 제대로 알고자 하는 엄마들의 진지함은 개신교, 가

## 통도사 범어사 등 돌며 불교공부 삼매 전통문화 이해로 ‘종교의 벽’ 넘어

등을 답사한 후였던 엄마들은 김 저자가 쓴 〈엄마 따라 절에 가기〉를 읽으면서 의문이 생겼다. 책 내용 중에 평소 알고 있던 것과 차이가 나는 내용이 나오자 ‘징검다리’ 회원들은 출판사로 전화를 걸었고 그 소식을 접한 김 저자가 흔쾌히 범어사의 안내와 설명을 제안하고 나서면서 자연스럽게 저자와의 만남이 이뤄졌다. 김 저자의 설명은 대표소 앞에서 ‘합장’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이미 금화사

블릭, 불교 등 각자가 가진 종교의 울타리를 이미 뛰어넘고 있었다. “전통문화의 이해는 곧 불교문화의 이해와 직결돼 있어 불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귀에 쫄 쫄 들어오는 설명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경애(36·개신교) “딱딱하게, 혹은 어렵게 생각했던 불교가 너무 무겁지 않게, 재미있게 쉽게 다가와서 좋네요.” 정혜선(41·가톨릭) ‘징검다리’ 회원들은 “다음에 아이와 함

## 천성산에 힘 보태자! 공동조사 앞두고 결의행사



5월 21일 천성산 자락인 양산 다람쥐캠프장에서 열린 ‘민간 조사단 활동 지지와 결의를 나누는 천성산의 밤’ 행사가 개최됐다(사진).

천성산을 위한 시민종교단체 연석회의가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내원사 주지 혜동 스님, 지율 스님, 환경운동가, 교사 등 200여 명이 함께 했다. 특히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천성산 일대를 도보로 돌며 천성산의 파괴 현장과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체험 중이던 녹색순례단원들도 지율 스님과 얘기를 나누며 결의를 새롭게 다졌다.

이날 행사는 천성산을 지키는 열쇠가 곧 공동조사가 원만히 이뤄지길 기원하는 시간으로 밤늦도록 이어졌다. 공동조사를 위한 시추는 빠르면 6월 초 시작될 예정이며 조사는 3개월 동안 지하수분야, 구조지질분야, 암반공학분야, 지구물리탐사분야, 생태계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천미희 기자

들기 등 스님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참선, 산행, 불무도, 발우공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051)508-3123 천미희 기자

## 정토회 북한에 비료 720톤 지원

정토회(대표 유수)는 5월 24일 부산 제3부두에서 북한 함경북도 운성군에 지원할 비료 선적식을 가졌다.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을 비롯한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선적식에서는 운성군 소재 논 1800정보(540만평)에 사용될 요소비료 450톤과 복합비료 270톤을 합해 총 720톤의 비료가 북한으로 가는 배에 실렸다.

비료를 실은 중국 국적의 동명해운은 24일 밤 10시경 부산항을 출발해 26일 늦게 여진항에 도착, 27일 다시 기차로 운성까지 들어가게 된다. 이날 정토회가 지원한 비료는 시가로 3억 5천만 원에 달하며 운성군에 있는 모든 논에 사용될 양에 해당된다.

천미희 기자

## 은적사 ‘나를 찾아가는 108배’



대구시 앞산 은적사주지 허운가 5월 22일 경내 마당에 오색연등을 밝히고 저녁 7시부터 나를 찾아가는 108배 행사를 거행했다(사진).

주지 허운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신도 50여명은 김영동씨의 새로운 음반 ‘생명의 소리’에 맞춰 입정, 108배, 명상의 시간을 갖고 무형문화재 6호 전수자 김향교씨의 영제시조와 대금연주를 음미했다.

허운 스님은 “앞으로 매일 보름 포살법회 대신 나를 찾아가는 108배를 통해 참회와 진정한 참 나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하나의 문화운동으로 이어가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 청소년쉼터, 가솔 예방 토론회

청소년들의 가솔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가솔 청소년들의 쉼터인 부산시 청소년쉼터(대표이사 범신가) 가솔 예방 토론회를 개최해 관심을 모은다.

6월 2일 오후 3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가솔예방토론회는 가솔 청소년이 1만3000여 명을 훌쩍 넘어선 시점에서 가솔 청소년들의 보호 방안, 적절한 개인 방법 등을 논의하며 보다 나은 보호시설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부산시내 청소년관련 기관 실무자, 학부모 및 일반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051)756-0924 천미희 기자

## 쌍계사, 다맥 전수식 및 산사음악회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왼쪽)이 남해 망운암 주지 성각 스님에게 다맥전수증을 전달하는 모습.

하동 쌍계사(주지 우담)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초의 선사 다맥 전수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서울, 대구, 부산을 비롯 전국 각지의 다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 강의, 제다공장 견학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21일 열린 산사음악회 ‘진공묘유’에서 멋을 더했다. 20일 밤 쌍계사 앞 특설무대에서 열렸던 산사음악회는 식전행사로 중국다도 유희 18식 공연

과 티베트 피리 연주자 나왕체국의 명상 음악,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의 범패 시연 등으로 알차게 꾸며졌다.

3일동안 열렸던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다맥전수식. 다맥전수식에서는 고산 스님을 전수사로 6대 전수자 남해 망운암 주지 성각 스님을 비롯한 14명, 이장예체를 전수사로 7대 전수자 한숙희씨를 비롯한 25명 등 총 39명이 다맥을 전수받았다. 글·사진·천미희 기자

## “함께 손잡고 잘~해 보입시다”

### 부산지역 ‘청년불교연대’ 활동 본격화

부산지역 청년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청년불교연대가 주최한 ‘불교야 놀자’에 함께 한 부산지역 17개 청년모임은 5월 22일 체육대회, 장기자랑 등으로 부산지역 청년불교 활성화의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

단위 사찰별로 활동하던 청년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날 행

사에는 범어사, 범어사 금강암, 해원정사, 대각사, 흥법사 등의 사찰 정자와 보현회, 열린 마 등의 봉사 모임, 불림모임 ‘연꽃이 필 때’ 등 다양한 청년 모임이 함께 했다.

이날 행사에는 천마재활원 장애인 축구부와 청년회원의 이색 축구대회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천마재활원 축구부는 봉사모임인 보현회가 17번째 지도하고 있는 세계장애인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둔 실력파로 이날 게임도 승리로 장식했다. 이날 행사를 준비했던 청년불교연대는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와 조계종 불교청년회로 양분됐던 부산 청년불교의 힘을 결집하는 연대 조직으로 이날 행사를 계기로 부산 청년불교 운동의 중심이 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6월부터는 부산 지역에서 청년 법회가 열리고 있는 사찰이나 모임을 파악하고,

법회 순례단을 결성할 예정이며 7월 초에는 부산 청년불교운동의 중흥을 위한 행사로 ‘청년 불자 범심 라디엔터링’ 행사를 계획 중이다.

라디엔터링이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는 금강산 등문을 출발, 전장대, 북문, 고당방, 마애불을 거쳐 범어사로 내려오는 코스를 김한근 부산민학회 사무국장의 설명을 들으며 걷게 된다. 이 과정 동안 라디오를 통해 퀴즈나 게임을 함께 푸는 라디엔터링 행사가 진행되는 색다른 행사이다. 천미희 기자

## 해인사 외국어학림 개원 연기

함천 해인사(주지 현응)는 5월 22일로 계획했던 외국어 학림의 개원을 내년 3월 봄 학기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외국어 학림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비구니스님들의 지원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현재 해인사 외국어 학림에 지원한 스님은 단 3명.

‘학림 설립추진 준비위’는 일반학림의 중간이라는 시간적 제약과 영어실력 테스트에 대한 부담 때문에 비구니스님들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많은 스님들이 어학연수를 위해 외국에 나가고 있는 실정에서 ‘해인사 외국어 학림’의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해인사는 오는 9월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펼쳐 ‘해인사 외국어 학림’의 추진을 더욱 가속화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 범어사 가족 대상 템플스테이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는 6월 4일부터 6일까지 가족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가족 템플스테이는 산사에서 가족과 함께 비빔밥 만들어 먹기, 우리가족 가훈 만들기, 가족 간에 서로 사진 찍어주기, 가족 창작 등 만

## 신입생 모집 동방대학원대학교

2005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안내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5. 6. 1(수)~17(금)
- 전형일자 : 2005. 6. 25(토)
- 전형방법 : 서류·면접 전형
- 합격자발표 : 2005. 6. 29(수)

### 모집학과 전공

- ◆ 문인사화학과  
사회예술학전공 / 옷질조형학전공 / 예술경영학전공
- ◆ 불교문예학과  
불교문예학전공 / 동방미술사전공 / 요가명상학전공
- ◆ 민속문화학과  
역경풍수학전공 / 무속민속학전공 / 자연치유학전공

석사과정 수업연한 : 2년(4학기)  
학사학위가 없는 분을 위하여  
학과전공별 연구과정 및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함  
문의전화 : (02) 745 - 2141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dongbang.ac.kr

## 동방대학원대학교 자연치유 전문가 최고위 특별과정

웰빙시대의 자연치유 최고전문가 양성 기관

1. 접수 및 개강일
  - 1) 접수일 : 2005년 6월 1일 - 6월 30일
  - 2) 개강일 : 2005년 7월 5일 [화요일]
2. 교육과목
  - 음양오행연구 • 오행식이요법 • 경락경혈연구
  - 요가명상연구 • 체형교정요법 • 단전호흡연구
  - 기공체조연구 • 민간자연요법 • 교양특강
3. 과정·수업방법
  - 1) 1년 과정 [2학기] : 총30주 강의
  - 2) 화·금 : 18:30 ~ 21:00
4. 지원자격·정원
  - 1) 자연치유에 관심 있는 일반인 • 관계자 [30명]
  - 2) 서류전형 후 개별 통지함
5. 제출서류 및 등록금
  - 1) 본교 소정의 입학원서 2)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 3) 1학기 등록금 : 2,300,000원
6. 기타사항
  - 1) 총장명의 자연치유 전문가 수료증 수여함
  - 2) 자격검정 후 자연치유사 민간자격 부여함
  - 3) 본 대학원대학교 동문회 회원자격 부여함

문의전화 : (02) 745 - 2141 ~ 3  
(136-82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2동 292-1

## 묘향산 전록탕

김일성만 먹냐 우리도 먹자!

### 50년간 북한을 통치한 김일성 장수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반세기 동안 한반도 북한을 지배했던 김일성 그는 무병장수의 비결을 어떻게 얻었는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최고라는 결론을 내린 그는 비밀리에 만수무강연구소를 설립 3천여명에 달하는 의학자들을 통해 자신의 건강관리를 전담해 했다. 북한 최고의 의학자들만이 선발되는 만수무강연구소 그 곳에서 북한 동의학의 명의 허창걸 박사가 약국장으로 재직하며 김일성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고위층 간부들을 위한 신비의 명약을 개발하는데 일생을 바치다, 1996년 한국으로 귀순하여 한국인의 건강을 위해 김일성의 장수 비결을 공개 하기로 결심하고 묘향산 전록탕을 개발해 선보이게 되었다.

본 제품은 북한 만수무강연구소에서 최고위급 인물들을 위하여 개발된 제품 그대로입니다. 김일성 만수무강 연구소 묘향산요양소 약국장이었던 허창걸 동의학 박사가 우수한 안약제를 "약물동역학적"으로 제조한 안전안 건강식품입니다.

● 전록탕 성분 및 배합비율

- 영지균사체 10% · 당귀 5%
- 가시오가피 20% · 녹각 10%
- 동충하초 10% · 작약 5%
- 산수유 10% · 녹용 3%
- 백출 10% · 토사자 17%

■ 판매원 : 특원 (02)771-2985~6 ■ 제조원 : (주)NK 내추릴

총판 및 대리점 모집 (02)755-9821